

## 안식일의 참된 의미(누가복음 강해 15)

성경말씀: 눅6:1-11

그리스도의 사역(눅4:18), 복음 선포 및 구원, 구약을 완성하고 신약을 세운다. 유대교를 폐지하고 기독교를 세운다.

새 것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. 그래야 둘 다 보존된다. 어울린다.

기독교는 샤머니즘, 유교, 불교, 천주교, 개신교, 소크라테스 땀뺀이 아니다.

예수님의 구원은 옛 사람을 땀뺀하는 것이 아니다. 완전히 새로운 창조이다. 예가 필요함 새 것을 새 것에 담아야 함을 보여 주시기 위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심, <안식일의 참된 의미>

### 안식일

‘안식’(Sabbath, rest)이라는 말은 ‘멈추다, 그치다, 쉬다’는 히브리 동사(샤우바스)에서 나온 ‘안식일’은 말 그대로 ‘늘 하던 일에서 떠나 쉬는 날’이다.

- A. 안식일은 일곱째 날 즉 토요일이다(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, 창1:5, 8 등).
- 창2:2-3 안식일(일곱째 날, 히4:4).
  - 안식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곱째 날이다. 변한 적이 없다(마24:20). 지금도 이스라엘
- B.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법으로 지키라고 명령하심(창20:8-11). 1차적으로 모세 율법의 표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다(출31:13; 겔20:12, 19-21).
- 모세의 율법 이전에도 1주일에 하루를 떼어 안식함. 그러나 법은 아님
  - 법으로 지키는 것의 의미: 안식일에 일하면 죽는다(출31:14-15; 민15:32-36).
  - 교리적으로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만 속한 것이며 이방인들(세상)과 교회(그리스도인)와는 무관
- C. 특별히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일에 모든 것을 멈추고
- 자신들의 창조자를 기억해야 했다(출20:8-11).
  - 자신들의 구속자를 기억해야 했다(신5:15).
  - 우리도 이런 정신을 본받아 일주일에 하루를 쉬며 창조자와 구속자를 기억해야 한다.
  - ‘일주일에 하루를 쉬어야 한다는 안식 제도’는 결혼 제도와 마찬가지로 창조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주신 것이다(막2:27).
- D. 유대인들은 7년마다 안식년을 지켰으며 이때에 온 땅은 경작되지 않고 안식하였다(출23:10-11). ; 레25:1-7). 7일 창조, 7일 1주, 안식년, 희년, 7 명절
- 이스라엘의 70년 포로 생활(BC 606-536)의 원인: 렘25:11-12; 대하36:21
- F.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정신을 잊고 형식만 갖추기 시작하였다.
- 금지 규정 39가지: 1) 바느질, 2) (밭)가는 일, 3) 곡식 타작, 4) 골라내는 일, 5) 빵 반죽, 굽는 일, 6) 양털 깎기, 7) 불끄기, 쪼기, 8) 망치질, 9) 1km 이상 걷는 일 등, 안식일이 고통이 되고 짧, 형식화
  - 지금 식으로 말하면 6일 동안 세상에서 악한 일을 하고 주일 성수, 십일조 하는 것과 비슷함
  - 이런 전통이 금식과 안식일로 나타남.  
금식(사58:3-7), 안식일(사58:13-14)
  - 결과 속이 다른 위선의 종교가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함: 기도, 구제, 금식
  - 오락을 금하는 것은 좋은 일, 그러나 극단으로 나가면 안 된다.
  - 주일(안식일) 성수, 금식, 십일조 등은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.
- G. 신약 성도들의 안식일 준수: No!
- 구약의 율법 명령들은 이제 폐기되었고(고후3) 크리스천들은 이제 율법 하에 있지 않음(롬6:14).
  - 실제로 유대인들 외에는 안식일을 바르게 지킬 수 없음(거리 문제 약 1km, 전등, 차, 가스 레인지, 불 등)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을 짓고 그 주변에 모여 살았다.
  - 안식교, 안증회 등 토요일 예배를 주장하는 것은 시대착오 발상
  -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모였음(150년경에는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거의 확정됨).

## 안식일의 왜곡과 정정

1-2절: 곡식 받을 지날 때 곡식을 따서 비벼 먹음, 바리새인들의 지적: 안식을 범함

타인의 곡식을 먹어도 됨(신23:24-25), 그러나 안식일에는 안 됨

3-4절: 다윗이 행한 일(삼상21:1-6), 다윗이 도망가서 놓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감, 모두가 지친 상태, “빵 5개나 무엇이든 주십시오(3), 제사장이 빵을 줌”

‘보여 주는 빵’(12지파 혹은 12달의 12개)을 안식일에 성막의 성소에 둠(레24:5-9).

의미: 하나님의 얼굴(임재), 빵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을(그분의 마음을) 기억하라.

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영원한 언약(레24:8)

제사장만 먹을 수 있음(9), 그런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그 빵을 먹음

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,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곤궁에 처함.

대제사장이 허락함: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함, 의미: 사람이 사람의 규정보다 더 중요하다.

5절: 율법으로 판단하지 말라.

안식일의 원래 의미가 무엇이나? 사람을 위해 하루를 제정하신 것이 아니냐?(창2:2-9, 막2:27-28)

나는 안식일의 주니라: 내가 안식일을 제정한 여호와 하나님이다. 내가 창조자다.

너희의 전통으로 사람을 괴롭게 하지 말라. 간호사, 소방대원 주일성수 불가

새벽기도, 금요 철야, 구약의 십일조 등 한국 사람이 만든 전통으로 사람을 괴롭게 하지 말라.

종교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들을 철폐하려고 내가 왔다.

행15의 예루살렘 회의: 베드로의 말(행10), 야고보의 판결(19): 우상, 음행, 피 등 금지(28)

그래서 신약 교회에서는 사람의 전통이 사람을 얽어매서는 안 된다(우리의 이성과 상식).

6-11절: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병자를 고침, 숨어서 몰래 고치지 않고 공개적으로 고침

예수님의 포인트(9절)

하나님의 법 혹은 규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얽어매는 것이 아니다.

우리의 복장: 단정하게, 자매들 가능하면 무릎 아래 치마, 아이들도 걸러 있는 셔츠 신발

이런 것들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면 안 된다(믿음의 유무 판단).

구원받으셨습니까? 날짜, 구원 성경 구절, 절대 의심하면 안 됨, 공식대로 나와야 하는 규정 사람을 잡는 규정이다.

즉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.

서기관들,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놓쳤다(마23:24-26): 모기에 긴장, 낙타는 삼킴

예수님의 말씀: 마9:12-13

종교인들의 거부 반응이 심하게 나타남(11): 병자가 나왔으면 기뻐해야 하는데 오히려 화를 냄.

우리는 어떤가? 교회의 규정, 내가 세운 규정이 사람을 망치게 하지는 않는가?

구원: 내가 배운 대로 해야만 구원, 성장도 마찬가지

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시다. 누구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주신다.

그 뒤에 말씀을 먹고 성장하면서 법도 지키고 좋은 성도가 된다.

그래서 구원받으면 조금 홀로 두어야 한다.

“구원받고 나니 더 힘들어요.”, “며칠만 기쁘고 더 힘들어요”

방종하라는 것이 아니다: 예배, 기도, 말씀, 헌금, 교제 등을 속 중심에서 우리나라서 하라는 말이다.

## 결론

예수님이 오신 목적: 복된 소식 선포, 구원

새 것은 새 것에 담아야 한다. 그래야 보존된다. 어울린다.

우리는 새 사람인가? 우리는 신약 교회인가?

우리는 안식일 규정으로 사람을 잡지는 않는가? 하나님의 마음을 대적하는 규정은 없는가?

속이 겉보다 중요하다. 킹제임스 성경을 손에 든 것보다 그것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.